

□ 국내 건설산업은 연평균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산업부문으로, 수백조원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필요함

-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임. 국내 건설기성액 중 공공부문 비중은 30% 정도이나, 공공부문 건설공사 설계공사비 산정기준인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민간부문에까지 사용되고 있는바,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실제로 국내 모든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 공공부문에서의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낭비 우려가, 과소 책정 시엔 적정 공사비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정부가 1993년 말경 선언하였듯이, 선진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인 실적공사비로의 공사비 산정방식의 전환이 요구됨

-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바, 실적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이 필요함
- 또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공사분류체계(WBS)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향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과 산정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 수행이 필요함

-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하여 도, 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준시장단가 적용 기준(100억원 이상)의 타당성 검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금액 기준 제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아울러 경기도 자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방안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과 함께 기존 공사비와 비교 분석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종별 단가의 조사 및 개선방안과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경기도형 시장단가' 마련 및 적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